

기시다 “반격능력, 헌법 범위 내 운용”

日 총리 참의원 출석 밝혀 “국민 생명 지키기 위한 조치” 방위비 증액 증세 협력 요청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6일 일본 정부가 지난해 말 보유를 선언한 ‘반격 능력’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일상생활을 지키기 위해 헌법, 국제법과 국내법의 범위 내에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참의원(상원) 본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한 뒤 “헌법을 위반한 무력행사는 하지 않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반격 능력에 대해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고 그 수단으로서 탄도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행해진 경우, 무력행사 3요건에 근거해 그런 공격을 막기 위해 부득이한 필요 최소한의 자위 조치”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는 곧 “상대의 영역에 우리나라가 유효한 반격을 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스탠드오프’(원거리 타격) 방위 능력 등을 활용한 자위대의 능력”이라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와 관련해 “헌법과 국제법, 국내법의 범위 내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비핵 3원칙이나 전수방위 경지 원칙·평화 국가로서의

의 행보를 조금도 바꾸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미래 세대에 미루지 않고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으로 세제 조정에 협력을 요청한다”고 이해를 구했다.

기시다 총리는 또 여권이 논의를 시작한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국제법을 위반한 침공을 받는 국가에 대한 지원을 예로 들면서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된다”며 “여당의 검토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연당인 공명당은 방위장비 수출 조건을 담은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 지침을 재검토하기 위한 첫 실무협의를 전날 개최했다. /연합뉴스



동부 적전지 말 대피시키는 우크라이나 병사들 우크라이나 병사들과 봉사자들이 25일(현지시간) 동부 최전방 격전지인 아우다이우키의 버려진 농장에서 말들을 대피시키고 있다. 이 지역은 러시아가 점령 중인 도네츠크 주도 도네츠크시 중심가에서 불과 10km 안팎 거리에 있는 곳으로, 최근 바흐무트와 함께 최대 격전지가 됐다. /연합뉴스

“눈앞 총격전 벌어지는데…수단 일본인 대피 한국군이 도왔다”

일본 외무성 간부 밝혀 기시다 총리·외무상 감사 표명

군별 간 무력 충돌 사태가 벌어진 아프리카 수단에 거주하던 일본인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한국군의 도움이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일본 언론이 26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인 대피 과정에서 “여러 나라 중 특별히 큰 역할을 한 것은 한국군이였다”고 소개했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눈앞에서 총격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국군이 일본인을 차량에 태워 수송해줬다”며 “한일 관계 개선이 현장에서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한국군은 일본 정부의 부탁을 받고 23일(현지시간) 일본인 수 명을 한국군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준비한 차량에 태워 수단 수도 하르툼에서 북동부 항구도시 포트수단까지 약 850km를 육로로 이동했다.

일본 정부는 포트수단에 대기 중이던 항공자위대 C2 수송기로 일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총 45명을 지부위로 철수시켰다.

한국 대통령실도 수단에 체류 중인 일본인 수 명이 우리 교민과 동행했다고 발표했다.

과거에도 제3국 긴급사태시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가 협력한 적은 있었지만, 이번에는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가 개선되는 상황에서 조율이 진행됐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일본은 한국뿐 아니라 유엔, 프랑스 등의 도움을 얻어 수단에 체류 중인 약 60명의 자국민을 모두 무사히 대피시켰다.

한국군이 수단 내 일본인 대피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잇달아 감사의 뜻을 표했다.

기시다 총리는 24일 밤 수단 거주 일본인과 가족 49명의 대피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과 UAE, 유엔의 협력이 있었다”면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25일에는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이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한국, 프랑스, 독일, 미국, 영국, UAE, 사우디아라비아, 유엔과 국제적십자사 등 많은 국가와 기관의 협력을 얻었으며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포르투갈 대통령 “노예무역 사과하고 책임져야”

서유럽 국가 수장 첫 사죄 언급

포르투갈의 마르셀로 레벨로 데 수자 대통령이 과거 포르투갈이 저지른 노예무역에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서유럽 국가 수장이 노예무역과 관련해 국가 차원의 사과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레벨로 데 수자 대통령은 이날 ‘카네이션 혁명’ 기념식에서 “우리는 과거에 대해 사과 그 이상을 해야 한다”며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과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추가 언급은 없었다.

카네이션 혁명은 1974년 군부가 무혈 혁명으로

수십년간 이어져 온 독재 정부를 무너뜨린 일로, 포르투갈 민주화의 분기점이 됐을 뿐 아니라 앙골라,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식민지들의 독립 계기가 됐다.

가디언에 따르면 15~19세기 600만명 이상의 아프리카인이 납치돼 포르투갈 선박에 실려 대서양 건너 포르투갈 식민지인 브라질에 노예로 팔렸다.

포르투갈은 그러나 그간 노예무역에 관한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았고, 학교에서도 이에 관한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레벨로 데 수자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1822년 포르투갈에서 독립한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툴라 다시우바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유럽을 방문해 포르투갈 국회에서 연설한 뒤 나왔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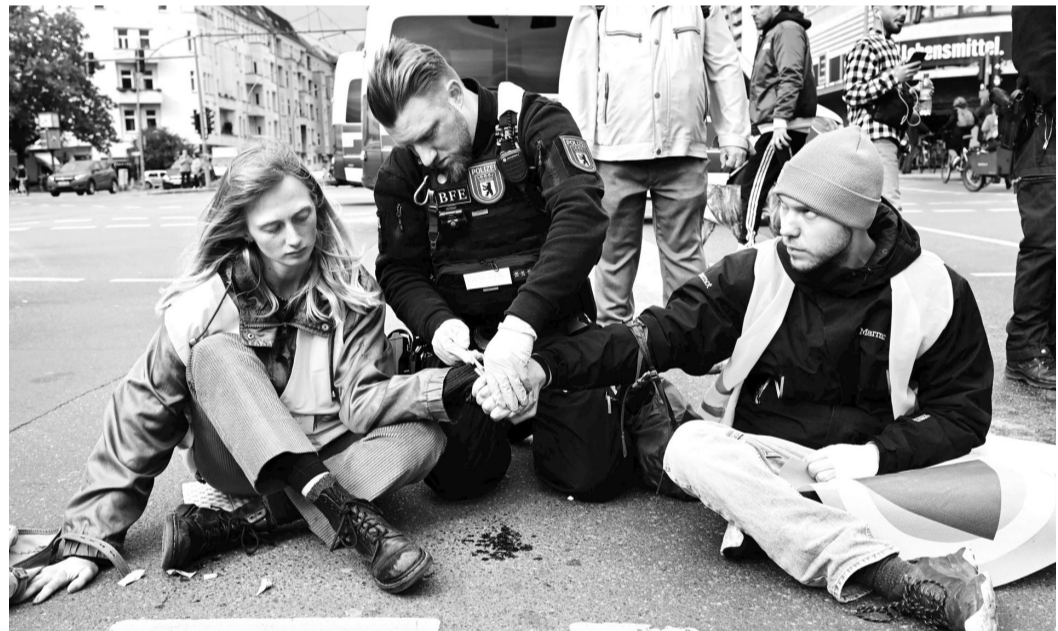
4월에 40도 육박 가뭄 비상 스페인, EU에 기금 지원 요청

4월에 보기 드문 고온과 가뭄이 시달리고 있는 스페인이 유럽연합(EU)에 긴급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고 AP 통신이 25일(현지시간) 전했다.

루이스 플라나스 스페인 농수산식품부 장관은 EU 농업 담당 집행위원에게 80만여 명의 스페인 농업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서한을 전달 보냈다고 밝혔다.

플라나스 장관은 다른 지역에도 가뭄과 고온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베리아반도에서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며 EU가 재정 지원에 있어 유연성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앞서 스페인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에 가뭄이라는 악재까지 겹친 농가에 18억유로(약 2조6000억원) 상당의 세금 감면을 약속했다.

현재 스페인 영토의 27%가 가뭄 “비상” 혹은 “경보” 단계며, 전국적인 물 부족량은 50%에 불과하다고 스페인 생태전환부가 파악했다. /연합뉴스



기후활동가들 손 떼어내는 독일 경찰 독일 경찰이 25일(현지시간) 수도 베를린에서 기후운동가들 손에 붙은 접착제를 떼어내고 있다. 이날 활동가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바닥에 손을 접착하거나 서로의 손을 붙인 상태로 도로를 점거하는 시위를 벌였다. /연합뉴스

“6·25 참전·지원국 고맙습니다”

뉴욕서 ‘평화통일의 밤’ 행사 30개국 유엔 무관 참석 성황

“대한민국의 발전은 참전용사 여러분들의 희생과 참전국의 도움 없이는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25일(현지시간) 저녁 미국 뉴욕시 리버사이드교회에서 한국전쟁에 참전했거나 도움을 준 63개국에 감사의 뜻을 표하는 ‘2023 평화통일의 밤’ 행사가 열렸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가 주최한 이 행사는 올해가 세 번째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탓에 4년 만에 재개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동시에 열린 이날 행사에는 거의 30개 참전 또는 지원국

의 유엔주재 무관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직전 행사였던 2019년에는 20개국 미만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양국 기수단에 이어 각국 무관이 한 명씩 진행자의 소개로 입장할 때마다 모든 참석자가 기립박수로 따뜻하게 환영했다.

석 사무처장은 기조연설에서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북한에 의해 자유와 평화를 위협받고 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인권 탄압을 거론한 뒤 이날 행사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각국 무관들에게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소개하면서 “이를 통해 북한 비핵화와 남북 교류·협력의 선순환을 이룰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완성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